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군사적 천재’의 의미

임익순*

1. 머리말
2. 전쟁 연구에 대한 시대적 영향과 관점
3.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
4. 군사적 천재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 관한 언어의 마술사다. 그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그만의 현란하면서도 고유한 언어로 전쟁을 논하였다. 그는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용어나 군사적으로 재해석한 용어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적대감정과 적대의도’(feindseligen

* 육군교육사령부 군교수

gefühl und feindseligen absicht),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absoluter und wirklicher krieg), ‘경이로운 삼위일체’ (wunderliche dreifaltigkeit), ‘우연’(zufall), ‘마찰’(friktion), ‘전쟁의 목적과 수단’(zweck und mittel im kriege), ‘군사적 천재’(kriegerische genius), ‘중심’(重心, centra gravitatis, schwerpunkt), ‘한계정점’(kulminationspunkt) 등이 그것이다.¹⁾ 이러한 용어들은 클라우제비츠 자신의 전쟁 경험과 전쟁 역사에 대한 분석, 전쟁을 지휘한 뛰어난 군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전쟁이라는 주제에 천착(穿鑿)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 용어들은 하나하나가 전쟁을 구성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개념들이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군사적 천재’²⁾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 고찰한 『전쟁론』 1편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와 ‘전쟁의 목적과 수단’에 이어 세 번째 주제로 ‘군사적 천재’를 논하였다. 그는 먼저 ‘전쟁이란 무엇인가?’에서 전쟁이라는 현상을 끝까지 분석한 뒤 이론적 연구를 위한 본질적인 출발점으로서 전쟁을 두 사람 간의 대결로부터 ‘확대된 양자 간의 결투’³⁾로 보았다. 이어서 그는 전쟁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1) 클라우제비츠 저,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2008;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http://www.clausewitz.com/index.htm>, Text, *Vom Krieg*(ed. Werner Hahlweg, 1991)에서 필자 임의로 선정하였음. 앞으로 이 논문의 분석을 위한 주 텍스트는 류제승의 번역본과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의 독일어 원문이며, Peter Paret과 Michael Howard가 번역한 『On War』를 참조할 것임. Peter Paret & Michael Howard, *On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76.

2) ‘군사적 천재’는 ‘전쟁 천재’로 번역되기도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Der kriegerische Geniu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군사적 천재’라는 번역은 Paret의 영어번역인 ‘Military Genius’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kriegerische’를 전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대 독일어 사전의 용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군사’ 또는 ‘군무’라는 의미를 반영하여 ‘군사적 천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앞의 웹주소)

3) 류제승 역, 위의 책, p.33.

들을 설명하고, 그 결론으로서 전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성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제시하였다. 이후의 논의는 이 삼위일체로부터 파생되는 관념들에 대한 것이다. 그는 2장에서 전쟁의 목적을 부여하는 요소와 수단을 운용하는 요소와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존재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군사적 천재’란 클라우제비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인물들은 수없이 등장한다. 전쟁 사례를 기록해온 역사가나 연구자들이 상세한 전쟁의 원인과 경과, 결과 등의 분석과 함께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은 그 전쟁을 누가 지휘했느냐이다. 이것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국가의 왕이 되었든 임명된 장수였든 상관없이 전쟁과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최고지휘관 또는 야전사령관)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야전사령관의 중요성을 그의 독특한 표현인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19세기 초 유럽의 시대적 상황, 자신의 전쟁 경험, 전쟁 사례에서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이론으로 정립하면서 전쟁이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군사적 천재’의 필요성을 보았던 것이다. 야전사령관은 전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중 하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쟁에 접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따라서

4) 류제승 역, 앞의 책, p.57. 클라우제비츠는 『Vom Krieg』에서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제시하면서 ‘dem Feldherrn und seinem Heer’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클라우제비츠, 앞의 웹주소, Text, *Vom Krieg*, Erster Teil, Erster Kapitel, ‘Was ist der Krieg?’). 류제승은 이 용어를 ‘야전사령관과 군대’라고 번역하였으며, 번역자에 따라 ‘최고지휘관과 군대’, 또는 ‘지휘관과 군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원문의 의미와 현대의 개념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류제승의 번역을 사용하였다.

‘군사적 천재’란 최고지휘관 또는 야전사령관의 중요하고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표현이다.

‘군사적 천재’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인 것으로 정기간행물의 기고 성격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사적 천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드물게 보인다. 한국에서는 2012년 양승모의 석사논문이 있고, 미국에서는 1986년에 미 육군대학의 블레어(Joseph M. Blair III) 중령이 쓴 논문이 있다. 이 두 논문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적 천재’의 특성을 인물 사례에 비추어 분석한 실증연구 성격의 논문이다.⁵⁾

필자는 실증연구와는 달리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 자체와 이에 관련된 몇 가지의 주요한 개념들을 연구주제로 삼았다. 전쟁의 본질 안에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개념의 의미와 현대의 우리에게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논리 전개를 위해 Ⅱ장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론과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다양한 관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Ⅲ장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군사적 천재’에게 요구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요약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삼위일체론 등 『전쟁론』의 주요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Ⅴ장 결론에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현대의 전쟁에 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5) 양승모, 『李舜臣 將軍의 리더십 分析: 클라우제비츠의 軍事的 天才 概念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 논문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적 천재’의 요소에 따라 분석한 실증논문이다.

Joseph M. Blair III, *THE INGREDIENTS OF MILITARY GENIUS*, US Army War College, 1986. 이 논문은 남북전쟁 시 Stonewall Jackson 장군의 리더십을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적 천재’ 개념에 대입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2. 전쟁 연구에 대한 시대적 영향과 관점

전쟁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빌리면, “연구는 그 자신의 문법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⁶⁾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논리는 전쟁을 둘러싼 상황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울 수 있지만, 그 논리를 기술(記述)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문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상황과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할 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어떤 관점에서 전쟁을 보았는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그의 입장, 즉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클라우제비츠는 입헌군주국가인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이며 장군으로서 국왕의 신하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⁷⁾ 또한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기적인 명예욕을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⁸⁾ 그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애국심 투철한 프로이센의 국민이라는

6) 류제승 역, 앞의 책, p.411, p.54; 허남성,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3위1체론’ 소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57호, 2005, p.328;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앞의 웹주소, Text, Achten Buch: Kriegsplan, Sechstes Kapitel: B.;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그 자신의 문법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Er hat freilich seine eigene Grammatik, aber nicht seine eigene Logik.)”라고 하였다. 이 말은 전쟁은 수단에 불과하므로 수단이 운용될 때는 그 자신의 문법에 따르게 되지만 전쟁이라는 전체의 논리는 목적을 부여하는 정치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목적과 수단은 항상 상호작용하게 된다.

7) Peter Paret & Michael Howard, 『On War』, p.3, p.19. 클라우제비츠는 1818. 9월에 장군으로 진급한 뒤 그해 12월에 베를린에 있는 ‘War Academy’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이후 1830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전쟁론』을 집필하였다.

8) 류제승 역, 위의 책, p.9. 1832년 『Vom Krieg』를 출간한 클라우제비츠의 부인 마리는 출간사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신앙인으로서의 내적 욕구에 대한 일면을 밝혔다.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 1812년 프랑스의 강압에 의해 프로이센이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었을 때 발표한 ‘충성서약’(I Believe and Profess)은 그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나는 확신하고 고백하건대 한 국민의 존재에 있어서 위엄과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음; 이것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함; 이보다 더 신성한 의무는 없으며 이보다 더 숭고한 법칙은 없음; 겁쟁이의 굴종에 의한 수치의 자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음; 굴종의 독약 한 방울이 국민들 핏속에 섞여 후손들에게 이어지면 다음 세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킨다는 것을 ……”⁹⁾

클라우제비츠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은 전쟁의 본질을 이론으로 정립할 때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면서도 객관적 관점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요소로 작용하였다.¹⁰⁾ 클라우제비츠에 있어 객관적·주관적 관점의 상호작용은 전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관점과 전쟁역사에 대한 관점, 사상적·철학적 관점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각의 관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나누어서 살펴본다.

9) 허남성, 앞의 논문, p.314에서 재인용

10) 류계승 역, 앞의 책, p.466.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제8편 9장 ‘적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전쟁계획’에서 프랑스에 대한 주관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일 150년 동안 유럽을 억압해온 프랑스가 다시 그 **오만함(Übermut)**을 보인다면 우리는 매번 이러한 방식으로 프랑스를 타도하고 길들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파리 서쪽 루아르 강 선까지 진출해야만 비로소 유럽의 평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프랑스의 행위를 **오만하다**고 표현한 것은 프랑스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상대방인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입장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가. 방법론적 측면

클라우제비츠가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전쟁을 연구하면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책의 서문이나 본문에 제시된 몇 가지 단서와 논리를 전개한 흐름 안에서 유추해 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먼저 클라우제비츠는 발간사에 수록된 1818년경 작성된 것¹¹⁾으로 보이는 메모에서 “이러한 논술 의도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몽테스키외(B. Montesquieu)가 사용했던 연구방법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¹²⁾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전쟁론』 본문의 시작을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별 요소들과 개별 부분들을 사유하고, 최종적으로 내적 연계 하에 전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단일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진전되는 연구방법론이다.”¹³⁾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단서로부터 우리는 그가 전쟁의 본질적인 개별 요소를 찾기 위한 분석방법과 개별적인 전쟁의 본질적 요소를 종합하여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방법론은 『법의 정신』에서 정치체제의 형태를 찾아

11) Peter Paret & Michael Howard, 앞의 책, p.63.

12) 류제승 역, 앞의 책, p.7; Peter Paret & Michael Howard, 앞의 책, p.63;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앞의 웹주소. 류제승은 “이러한 논술 의도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몽테스키외가 사용했던 연구방법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로 번역했으며, 원문은 “Die Art, wie Montesquieu seinen Gegenstand behandelt hat, schwebte mir dabei **dunkel** vor.”이다. 또한 파렛과 하워드는 “The manner in which Montesquieu dealt with his subject was **vaguely** in my mind.”로 번역하였다. 독일어 **dunkel**은 ‘희미하게’, ‘뚜렷하지 않게’라는 의미이고, 영어 **vaguely**는 ‘어림푹이’라는 의미인 것을 고려하면 대략 ‘몽테스키외가 주제를 다루던 방법을 어림푹하게 마음에 그렸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제비츠가 몽테스키외의 연구방법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13) 위의 책, p.33. 『Vom Krieg』 원문에는 연구방법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류제승은 이 문장을 클라우제비츠의 연구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Wir denken die einzelnen Elemente unseres Gegenstandes, dann die einzelnen Teile oder Glieder desselben und zuletzt das Ganze in seinem inneren Zusammenhange zu betrachten, also vom Einfachen zum Zusammengesetzten fortzuschreiten.”

내기 위해 적용했던 분석-종합방법¹⁴⁾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라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내려 했던 방법을 말한다. 알튀세르(Louis P. Althusser)는 몽테스키외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 속에 뒤엉켜 있는 ‘논리’와 ‘바탕’을 끄집어냈으며, 역사적인 사실에만 근거하여 정치체제의 일반요소와 법칙을 찾아냈다고 하였다.¹⁵⁾ 아롱(Raymond F. Aron)은 몽테스키외가 다양성의 배후에 놓여진 하나의 질서, 혹은 역사적 진리를 개념적으로 파악했다고 평가하였다.¹⁶⁾ 한편, 카시러(Ernst Cassirer)는 몽테스키외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힘들의 최대 자유를 위해 ‘권력분립’이라는 상호 견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밝히려 했다고 보았다.¹⁷⁾ 알튀세르와 아롱이 평가한 몽테스키외의 방법론은 클라우제비츠의 ‘양자대결’, ‘무제한적 폭력’, ‘불확실성과 우연’ 등과 같은 분석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카시러의 몽테스키외에 대한 평가와 클라우제비츠가 밝힌 단일한 것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체계화한 흐름은 ‘경이로운 삼위일체’, ‘군사적 천재’ 등과 같은 이론으로 종합되어 드러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원인에서 결과를 추론하는 역사적 고찰의 비판에서는 어떤 사실을 근본 요소까지 분석하는 것,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⁸⁾고 하였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분석에 대하여 “비판은 인간의 계산적 사고와 신념의 범위에서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사실과 상황의 인과관계를 그 결과가

14) E. Cassirer 저, 박완규 역, 『계몽주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5, p.37.

15) Louis Althusser, *Politics and History*, London: Verso, 1972, pp.13~14, p.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ujun&logNo=60058434367>(구글 검색, 몽테스키외 방법론, 검색일 : 2016.1.15))

16) 레이몽 아롱 저, 이종수 역, 『사회사상의 흐름』, 서울: 흥성사, 1980. pp.22~25.

17) 박완규 역, 위의 책, pp.37~38.

18) 류제승 역, 위의 책, p.136.

말하도록 해야 한다.”¹⁹⁾고 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전쟁의 본질은 그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관계에 따라 전쟁 이론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클라우제비츠의 생각은 자신의 연구방법이 몽테스키외의 방법처럼 역사 속의 구체적 사실에서 법칙을 찾아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역사적·군사적 측면

인류가 겪어온 전쟁 역사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군사사(軍事史)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매트로프(Maurice Matloff)의 정의와 구소련의 『기초군사용어사전』의 정의를 인용하면, ‘군사사란 역사의 넓은 흐름 속에서 사회의 군사적 경향과 지적(知的)·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합류점을 탐색함으로써 과거의 군사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²⁰⁾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유럽의 역사에서 국가 간의 적대관계가 시작된 연원을 당시로부터 150년 전 프랑스의 주변국 침략에서 찾고 있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독일제국의 해체와 유럽의 혼란을 불러온 역사적 기원을 루이 14세가 1667년부터 영토 확장을 위해

19) 류제승 역, 앞의 책, p.143.

20) 이종학, “현대 군사사의 연구방향”, 『한국 군사사 연구』, 대전: 충남대출판부, 2010, pp.21~24에서 재인용; Maurice Matloff, “*The Nature and Scope of Military History*”, *Essay in Some Dimensions of Military History*, vol. 1,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972. p.7. “군사사는 사회의 군사적 경향과 지적(知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요인의 상호작용과 합류점을 다루게 된다. 그 상호작용과 합류점은 역사의 넓은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Dictionary of Basic Terms(A Soviet view)*,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37. “역사학의 한 분과요, 마찬가지로 군사학의 한 분과인 군사사는 현대 군사학의 발전 근원의 하나로서 작용하는 과거의 군사경험의 일반화이다.”

주변 국가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프랑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주변국을 침략하면서 국가 간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국민이 전쟁에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대관계는 쌍방 국가 간의 관계였고 상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감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모두의 적대감정은 한 국가의 내부에서 촉발되었는데 그 적대감정이 쌍방 국가 간의 적대관계와 충돌했을 때 쌍방 국민 간의 적대감정으로 전이(轉移)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적대감정이 전이된 현상을 보여준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대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인간들 간의 싸움은 본래 두 개의 상이한 동기, 즉 적대감정과 적대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 요컨대 최고 문명국민들 사이에도 상호 적대감정이 격렬하게 불타오를 수 있다.”²¹⁾

그러면 군사적 경향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이에 대한 관점을 ‘무제한적 폭력’으로부터 ‘절대전쟁’에 이르는 개념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우스터리츠 전역이나 예나-아우어슈테트 전역 등 초기의 나폴레옹 전쟁이 무제한적 폭력에 의해 절대전쟁 개념에 가깝게 구현된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의 역사와 초기의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폴레옹 군대의 무제한적 폭력이 프랑스 국민의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보았다.²²⁾ 클라우제비츠는 전 국민이 국가 대사(大事)인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첫 사례로 프랑스의 혁명

21) 류제승 역, 앞의 책, 제1편 1장, ‘전쟁의 본질’, p.35.

22) 위의 책, pp.369~370.

정부가 구제도를 타파한 국민의 자유의지를 군대로 흡수하여 수행한 혁명전쟁을 들었다.

“1793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투력이 등장했다. 전쟁은 돌연히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자신을 국민으로 여기는 인구는 총 3천만 명이였다. (...) 프랑스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군을 대신해 전체 국민의 비중이 힘의 균형을 좌우하게 되었다. 전쟁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았다.”²³⁾

그러나 프랑스 혁명군대의 무제한적 폭력에는 전투원 집단과 장군단, 정부의 전쟁지도 자체에 기술적인 불완전성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프랑스군의 미숙함을 보완하여 절대적 수준의 전쟁을 수행하였다.²⁴⁾ 클라우제비츠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혁명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국민 대중의 에너지가 절대전쟁 수준에 이르는데 필요한 무제한적 폭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이다. 사회의 군사적 경향과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은 유명한 명제인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불과하다.”, “전쟁은 정치의 한 도구이다.”와 같이 큰 틀에서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진다.²⁵⁾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폭력이 동원된 양자 간의 결투에서 ‘의지를

23) 류제승 역, 앞의 책, p.387.

24) 위의 책, pp.389~391.

25) 허남성, 앞의 논문, p.326;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Politik’란 독일어는 ‘정치’와 ‘정책’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므로, 영문판으로 번역한 Paret는 문맥에 따라 ‘politic’과 ‘policy’를 혼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정치, politic’라는 의미에서만 논의를 진행한다.

적에게 강요'하는 주체가 국가이며, 이 폭력은 국제법(völkerrechtlicher)으로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대결하는 쌍방을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²⁶⁾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정치의 개념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현실적인 관계에서 양측 국가의 목적이라고 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과 관련된 정치 개념은 국제관계에서의 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⁷⁾ 또한 전쟁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관계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국내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정치는 국내 행정의 모든 이해관계, 인간의 이해관계, 철학적 이성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등을 통합하고 조정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국가들과 대립되는 모든 이해관계를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⁸⁾

한편 클라우제비츠는 역사적으로 전쟁 현상의 관찰을 통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비범한 군사적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공통 특성인 천재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나폴레옹 전쟁의 초기 전역에서 나타난 나폴레옹의 독특한 군대 운용에 자극을 받았다. 또한 유럽의 다양한 전쟁 역사에 대한 관찰을 통해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을 군사적인 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하였다.²⁹⁾

26) 류제승 역, 앞의 책, p.34.

27) 위의 책, pp.43~44.

28) 위의 책, p.413; 그러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수행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관해 논의를 할 경우, 우리가 비난해야 할 대상은 정치의 영향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이다. 정치가 옳다면, 즉 정치가 스스로의 목표에 부합하면 전쟁 수행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현실의 국내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같은 책, p.415)

29) 위의 책, p.384.

다. 사상적·철학적 측면

클라우제비츠가 살았던 18세기에서 19세기 초는 사상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불린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의 시대를 거쳐 기독교 세계관에 도전한 ‘비판적 탐구와 이성의 적용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념’을 지칭하는 계몽주의가 18세기에 꽃을 피우고 19세기 초까지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센은 계몽주의의 발전이 늦었지만 볼프(F. von Wolff, 1679~1754)로부터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헤겔(Wilhelm F. Hegel, 1770~1831)에 이르면서 계몽주의 철학이 만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클라우제비츠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계몽주의의 핵심가치인 이성, 경험주의, 과학, 자유 등이 전쟁론 전체를 관통하는 클라우제비츠의 생각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계몽주의 사상에서 받은 영향은 다양한 지식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92년 소년병으로 군에 입대하고 1795년 소위로 임관한 후 교양과 군사지식에 대한 자료와 자극이 부족하여 1801년 베를린 군사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샤른호르스트(Gerhard von Scharnhorst)로부터 지도를 받아 수학과 군사학 지식에 있어 철저한 군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1803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³⁰⁾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지식에 대한 관점은 “지식은 능력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야전사령관의 정신과 삶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진정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³¹⁾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철학적 관점은 계몽주의 철학의 사유(思惟)방식과 유사하게 전쟁을 사유한 방법에 특징이 있다. 계몽주의 철학의

30) Paret & Howard, 앞의 책, pp.8~9.; 이종학,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 서울: 주류성, 2004. pp.41~43.

31) 류제승 역, 앞의 책, p.128.

사유방식은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분석 방법(귀납적 방법)을 계승한 것이다. 뉴턴의 방법은 관찰된 사실(현상)에서 원리로 가는 것, 즉 분석에서 종합으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계몽적 사유의 형식은 개별적 공리나 학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여 묻고, 허물어 헤치고, 다시 세우는 사유의 생성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의 사유방식을 적용하여 전쟁이라는 현상에 대해 의심하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비판적 설명은 의혹이 있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 전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을 그 발단까지 사실적·객관적으로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모든 원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본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비판적 분석은 이론의 고유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³²⁾

클라우제비츠는 위에서 논의한 분석과 종합을 위해 계몽주의 철학의 특징인 이성을 활용하였다. 그는 이성의 기능인 분석과 종합을 활용하여 전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종합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이성 또는 정신에 의한 사유, 즉 관념적인 사유에 있어서 당시의 독일 철학을 주도한 칸트와 헤겔로부터 그들이 사유한 내용과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³³⁾ 클라우제비츠는 각주에서 보느바와 같이 칸트가 사용한 ‘sinnlichkeit’(감성)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gemüt’(마음, 정서)나 ‘gefühl’(감정, 감각)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성에 대해서는 ‘vernunft’(이성) 보다 ‘verstand’(오성, 지성)를 많이 사용하였고, 정신은 ‘geist’(정신)를

32) 류제승 역, 앞의 책, pp.136~137.

33) Howard는 클라우제비츠가 칸트의 책을 읽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가 칸트와 같은 지적 접근방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Howard, *Clausewitz*, London: Oxford Univ. Press, 1985. p.13.

많이 썼다.³⁴⁾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어휘의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현상을 받아들이는 감성(감정 또는 감각)과 받아들인 현상을 개념에 의해 판단하는 오성(지성)이 시간을 매개로 하여 종합되어야 통각(統覺)에 이를 수 있다는 칸트의 사유 내용³⁵⁾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는 헤겔이 주장하는 바, 즉 대상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실재하는 힘이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는 오성이 진리까지 인도하고, 이 진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세계로 삼아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성이 정

34)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 전체에 걸쳐 사용한 심리와 관련된 주요 단어가 사용된 문단의 통계는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의 원문을 엑셀파일로 전환 후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며,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계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sinnlichkeit	0	0	0	0	0	0	0	0	0
gemüt	52	28	6	8	3	0	0	1	6
gefühl	53	20	10	0	7	5	7	2	2
vernunft	4	0	0	1	0	0	1	1	1
verstand	88	43	18	8	4	0	0	3	12
geist	150	35	49	41	10	0	0	6	9

류제승은 gemüt와 gefühl의 번역에서 감성과 감정을 혼용하였고, verstand와 vernunft를 이성으로 번역하였으며, geist를 정신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 감성은 sinnlichkeit이고 이성은 vernunft이며, verstand는 이성의 전 단계인 오성 또는 지성이다. 류제승의 번역 ‘예 1’(1편 3장, p.84) : ‘gefühl’; “Zweitens sehr Regsamen, deren **Gefühle** aber nie eine gewisse Stärke überschreiten, und die wir als **gefühlvolle**, aber ruhige Menschen kennen.” → “두 번째, 매우 민활한 유형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감성**은 결코 특정한 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며 **감정**이 풍부하지만 침착한 인간형이다.”; ‘예 2’(8편 6장 2, p.412.) : ‘**vernunft**’; “aber sie ist nichtsdestoweniger kein bloßes diplomatisches Herkommen, über welches sich die **Vernunft** hinwegsetzen könnte, sondern tief in der natürlichen Beschränktheit und Schwäche des Menschen gegründet.”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식방법은 **이성**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순수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인류의 본성적 결점과 약점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는 관례이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vernunft’는 ‘verstand’의 의미인 오성과 같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vernunft’의 의미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verstand’의 의미인 오성 또는 지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5) 김정주, 『칸트의 인식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249.

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유내용³⁶⁾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감성과 오성의 통합이라는 연장선에서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설명한 천재와 예술가의 독특한 특성이 전쟁이라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천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3.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많은 개념들이 신선하고 독특하지만 특히 ‘군사적 천재’라는 표현은 기발한 착상(着想)이다. 당시의 관념론적 사상은 ‘미’(美)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예술에서의 정신을 천재와 동일시하는 경향³⁷⁾이 강했다. 스코틀랜드의 제라드(Alexander Gerard)는 과학 분야에서의 천재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칸트는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려고 천재라는 개념을 예술 영역으로 한정하고 학문적·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제외시켰다.³⁸⁾ 이런 이유로 클라우제비츠가 군사 분야에서 천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 1편에서 전개한 ‘삼위일체’의 균형 개념 연결과 논리구조를 보면 필연적으로 군사 분야의 천재가 등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적 천재’는 획기적인 표현이며 치열하게 전쟁을 경험한 그의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다.

제라드(1728~1795)는 『An Essay on Genius』에서 천재를

36) F. Hegel 저,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2』, 서울: 한길사, 2005, pp.155~156.

37) 한동원, “칸트의 천재론”, 『인문과학연구』 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p.224.

38) 한동원, 위의 논문, pp.229~230.

하나의 마음의 능력(Imagination)으로 보았다. 그러나 독일의 볼프는 천재에 대해 라이프니츠(Gottfried W. Leibniz)의 조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천적인 능력들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그 능력으로 기억력·구상력·판단력·통찰력·재치를 들었다.³⁹⁾ 또한 칸트는 볼프의 견해를 수용하여 『판단력비판』⁴⁰⁾에서 정신·구상력·오성을 천재의 능력으로 들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천재라는 개념을 칸트의 천재론과 예술론의 사유내용 일부와 제라드의 견해를 수용하여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관념론적 입장에서 천재의 정신적 힘을 분석하였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클라우제비츠는 칸트의 예술에서의 천재와 구별하여 전쟁 현상에서 등장하는 군사적으로 천재성을 보여야 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재해석하고 그만의 고유한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가. 칸트와 클라우제비츠의 ‘천재’ 개념 비교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천재론’에서 천재와 예술의 복합된 개념을 “천재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타고난 재능이다.”라고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천재를 설명하고 “예술과 예술이론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예술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술이란 자연이 직접 주거나 만들지 않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이다. 예술이란 개발된 능력을 말한다.”⁴¹⁾

39) 한동원, 앞의 논문, p.224

40) 칸트의 3대 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1781, 1787),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비판』(1790) 중 제3비판서로 불리며, 제1부 미학상 『판단력비판』과 제2부 목적론상 『판단력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단력에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능력을 인정하고, 이 실천이성의 상징인 도덕으로써 생각할 범위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에게 인간을 향하게 하는 계기를 설명한다. 천재론은 1부 취미론의 부록처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41) <http://gutenberg.spiegel.de/buch/kleine-schriften-4071/21>(구글 검색, “Über Kunst und Kunsttheorie”, 검색일 2016. 1. 21)

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전쟁론』 1편 3장 ‘군사적 천재’를 시작하면서 “모든 행동이 대가(大家, Virtuosität)의 행동답게 이루어지려면 그 행동은 독특한 성향의 이성과 감성을 필요로 한다. 이 자질이 고도로 탁월하고 비범한 실행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러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천재로 표현된다.”⁴²⁾라고 함으로써 ‘대가’를 천재의 일례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Virtuosität’는 독일어 사전에 따르면 ‘(특히 음악에서) 예술적 기교의 완벽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결국 칸트와 클라우제비츠는 똑같이 천재와 예술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와 클라우제비츠가 천재와 예술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통점은 재능과 규칙 그리고 정신적 힘이다. 규칙과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칸트의 ‘천재론’에서 천재가 기존의 규칙에 제한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또 다른 규칙을 만든다는 것에 착안하여 군사적 천재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타고난 재능 및 규칙과 천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재란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타고난 재능이다. 이 재능은 예술가의 생산적 능력으로서 그 자체가 자연에 속하는 것이므로, 천재란 생득적인 심의의 소질(ingenium)이요 이것을 통해서 자연은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다.”⁴³⁾

여기서 칸트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에 대해 규칙을

42) 류제승 역, 앞의 책, p.72. 류제승은 ‘Virtuosität’를 ‘대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자에 따라 대가와 유사한 ‘거장’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43) D. 타이헤르트 저, 조상식 역, 『판단력비판』, 서울: 이학사, 2003, p.139; 정혜윤, “왜 베토벤인가”, 『철학과 현실』 92집, 철학문화연구소, 2012, p.147; 김현경, “위대한 베토벤”, 『대한토목학회지』 61집, 대한토목학회, 2013, p.108. 정혜윤과 김현경은 독일 음악가 베토벤(1770~1827)의 9번 교향곡 ‘합창’이 당시의 교향곡을 작곡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깨고 새로운 규칙(기악과 성악의 결합)을 창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넘어서는 독창성을 발휘하며,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⁴⁴⁾ 클라우제비츠의 천재는 전쟁에서 나타나며 이 천재의 재능과 규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칸트와 유사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편협한 고찰을 통해 얻은 빈약한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학문적 범주를 벗어나 있었고, 결국 모든 원칙을 능가하는 천재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원칙들은 천재에게는 너무 평범하고, 천재는 이 원칙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항상 이 원칙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 (...) 천재가 행하는 것은 곧 최선의 원칙이어야 한다.”⁴⁵⁾

칸트가 설명한 규칙을 넘어서는 독창력은 음악의 기본요소에 대한 규칙을 예로 들 수 있다. 음악의 기본요소에는 음과 화음, 박자가 있는데 음이 잘 어우러지는 화음과 그 화음에 맞게 박자를 맞추는 것을 토대로 많은 음악가들이 그때까지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재는 이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독특한 창의력과 새로운 방식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해냄으로써 또 다른 규칙을 만든다. 이것이 규칙을 넘어서는 천재의 천부적인 재능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기존의 규칙도 당시의 군사적 경향인 수적 우위나 보급 등 물리적 요소에 대한 수학적 규칙과 기지·내선 등 기하학적이고 도식적인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칙이 천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른다. 천재가 규칙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칸트가 제시한 것이 정신의 힘이다. 칸트는 천재의 능력으로 정신·구상력·오성을 제시하고 정신이 구상력·오성·감성과 결합하여 힘으로 나타나 천재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다.

44) 한동원, 앞의 논문, p.219.

45) 류제승 역, 앞의 책, pp.117~122.

클라우제비츠는 칸트와 같이 천재와 예술을 설명하였지만 칸트가 천재의 영역을 예술로 한정 한 것과는 달리 이를 확대하여 군사 분야에서의 천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천재라는 개념은 그 범위와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 철학자나 문법학자를 자처하지 않는다면 언어 사용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재의 능력이란 특정한 행동을 위한 고도의 정신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⁶⁾

여기서 클라우제비츠가 ‘특정한 행동을 위한 고도의 정신력’이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그의 예술적 느낌을 악보나 화폭에 옮기는 행동에 정신적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이 예술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도 무엇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른다. 클라우제비츠는 칸트가 천재를 한 가지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처럼 군사적 천재란 용기와 같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⁴⁷⁾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천재는 모든 정신적 요소의 조화로운 배합체로서, 하나 또는 다른 요소가 우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요소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성과 감성 등 모든 정신요소의 조화로운 배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힘의 계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이성의 중요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⁴⁸⁾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천재로서의 일반적인 능력과 군사 분야에서의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군사적 천재의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46) 류제승 역, 앞의 책, p.73.

47) 위의 책, p.73.

48) 위의 책, pp.73~74.

나.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

클라우제비츠가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을 1편 3장에서 분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1편의 논리전개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1장의 결론으로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 요소인 국민(폭력성), 야전사령관 및 군대(우연), 정부(이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2장 ‘전쟁의 목적과 수단’에서 정부의 몫인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가 주체인 전투력을 제시하였다. 이제 전쟁이 개시되면 전투력을 운용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전투력의 운용에는 야전사령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투력(군대)을 운용하는 최고지휘관의 천재적인 특성인데 이것을 ‘군사적 천재’로 개념화하고, 그 ‘군사적 천재’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3장의 목적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1편 ‘전쟁의 본질’ 1장에서 군사적 활동이 존재하는 영역을 위협의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이 영역에서 전쟁 현상을 극복하는 최고의 정신능력은 용기라고 하였다. 그는 1장에서 제시한 ‘위험의 영역’과 이 영역에서 필요한 최고의 정신적 특성인 ‘용기’라는 개념을 3장에 투사하여 확장된 영역에서의 확대된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위험의 영역’을 전쟁 분위기를 형성하는 네 가지 영역(위험, 육체적 노력과 고통, 불확실성, 우연)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확장된 영역에서 필요한 군사적 천재의 정신적 특성은 ‘용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능력으로 확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이성과 감성의 힘을 분석하고, 상상력과 같은 오직 이성만을 필요로 하는 군사적 활동으로서 전쟁과 지형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지형감각적 자질을 제시하였다.

1) 전쟁분위기를 형성하는 영역에서의 정신적 특성⁴⁹⁾

먼저 전쟁은 위협의 영역이다. 이러한 위협한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신적 특성은 용기이며, 개인적 위협에 대한 용기와 책임에 대한 용기 두 가지가 있다. 책임에 대한 용기는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내적인 힘으로서 양심에 의한 용기이다. 개인적 위협에 대한 용기는 위협에 대한 냉담함과 적극적 동기에 의한 용기가 있다. 위협에 대한 냉담함은 인체구조·생명 경시·습관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용기는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예욕, 조국애, 모든 종류의 열광 등 적극적 동기에 의한 용기는 감성과 감정에 기인하며, 모험적이고 때로 이성을 흥분시키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용기가 결합되면 가장 완전한 유형의 용기가 형성된다.

육체적 노력과 고통의 영역에서 필요한 특성은 건전한 이성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과 고통을 견뎌내려면 육체와 정신의 확고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영역에서도 이성의 힘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행동의 기초가 되는 요인의 4분의 3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있으므로 기민한 판단력으로 진리를 인지하려면 대상을 꿰뚫어 보는 이성이 필요하다.

우연의 영역에서 필요한 특성은 헤안(coup d'oeil)과 결단력, 침착성이다. 우연은 모든 상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모든 정보와 가정이 불확실하고 우연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교전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위대한 정신의 인물이 예기치 않은 요인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두 가지의 자질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암흑 속에서 진리로 이끄는 내면의 불빛의 흔적에 비유되는 이성으로서의 헤안이며, 하나는 이 희미한 불빛을 쫓는 이성에 의해 발원

49) 류제승 역, 앞의 책, pp.74~79. 전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위협, 육체적 노력과 고통, 불확실성, 우연의 네 가지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자질은 류제승의 번역본을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하는 감성으로서의 정신적 용기인 결단력이다. 헤안은 평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거나 오랜 고찰과 사색 끝에야 볼 수 있는 진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결단력은 개별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책임에 대한 용기, 즉 정신적 위험에 대한 용기이다. 따라서 이성은 용기의 감정을 일깨워야 하며 이 용기는 감정에 의해 유지되고 지탱된다. 헤안과 결단력에 밀접하게 관련된 침착성은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위험, 육체적 노력과 고통, 불확실성, 우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장애 요소가 확실하게 극복되려면 이성과 감성의 독특한 힘이 요구된다.

2) 상황에 따라 변형된 이성과 감성의 힘⁵⁰⁾

전쟁에서 교전자의 정신적 힘은 적의 활동·저항·행동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중압감·부담감·저항감에 의해 자극 받고, 다양하게 변형된 이성과 감성의 힘이 에너지·견고함·지구력·강한 감성과 개성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행동의 에너지는 야전사령관의 정신적 힘을 유발한 동기의 강도를 표현한다. 이 동기의 근원은 이성적 확신이나 감성적 자극에 있으며, 위대한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감성적 자극에 의한 동기가 요구된다. 감성적 자극은 올바른 평가된 공명심과 명예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병사들의 근면성, 경쟁심, 자극 등을 통해 군의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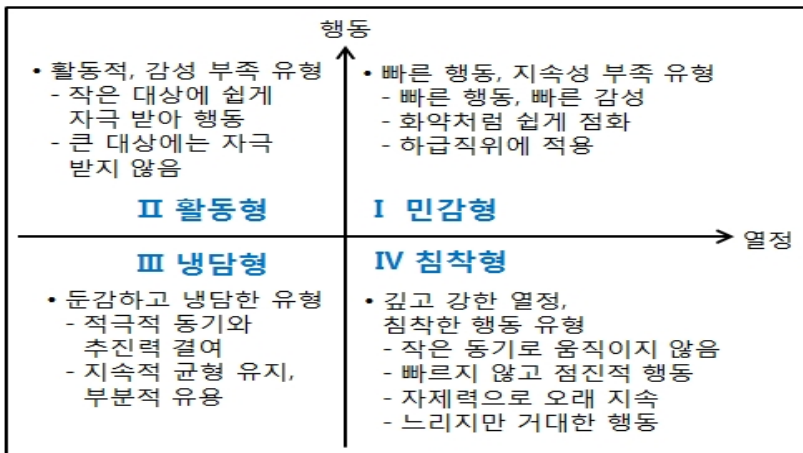
견고함은 타격의 강도와 관련된 의지의 저항을 이르며, 이 견고함은 순수하게 감정의 강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구력은 장기간 지속되는 의지의 저항을 이르며, 이것은 이성에 더 많은 근원을

50) 류제승 역, 앞의 책, pp.79~89.

두고 있다. 군사 활동의 계획성은 활동의 지속시간과 함께 증대되고 지구력은 부분적으로 이 계획성을 통해 그 힘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감성 또는 정신의 힘은 최고조의 흥분, 최고도의 격렬한 열정의 질풍 속에서도 이성에 복종하는 능력을 말한다. 격렬한 감성이 작용하는 순간 이성에 복종하는 힘을 자제력이라고 하며, 이것은 흥분된 열정에 싸인 강력한 감성 속에서 그 열정을 파괴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또 다른 감정이다. 자제력은 평형력이며, 이 힘은 타고난 통찰력과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 고귀한 자부심, 내적 심연의 정신적 욕구이다.

감성과 관련된 유형은 감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열정과 이에 따른 행동에 의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민활함을 거의 갖지 않은 유형으로 냉담하거나 무감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매우 민활한 유형으로 이 감성은 특정한 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며, 감정이 풍부하지만 침착한 유형이다.



〈그림 1〉 열정과 행동에 따른 유형별 특징⁵¹⁾

51) 류제승 역, 앞의 책, pp.83~86. 열정과 행동에 따르는 유형별 특징에 대한 그림

셋째는 매우 예민한 유형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감성은 화약처럼 신속하고 격렬하게 발화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넷째 유형은 작은 동기로는 움직일 수 없는 유형으로 결코 빠르지 않게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감정은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 될 경우 매우 오래 지속되며, 힘이 넘치고 깊숙이 내재된 열정을 가진 유형이다. 각각의 유형별 특징은 앞의 <그림 1>과 같다.

3) 지형감각적 특성⁵²⁾

전쟁에서 감성과 무관하게 오직 정신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군사적 활동은 전쟁과 지형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군대의 군사적 행동은 반드시 일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며, 이 관계는 모든 전투력의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띤다. 또한 이 관계는 한편으로는 지형의 가장 작은 특성과 연관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넓은 공간에 적용되기도 한다. 전쟁에서 야전사령관은 그의 활동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 지형적 공간은 육안으로 전체를 개관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도 없으며 지표물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친숙해지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러한 난점은 지형감각이라는 독특한 정신적 자질로 극복되어야 한다. 지형감각이란 모든 지형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하학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이며, 그 능력에 따라 어떤 장소도 언제든지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형 파악은 육안과 이성에 의해 가능한데 이성은 학문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통찰력으로 육안관찰의 결함을 보충하고 수집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전체를 구성한다. 이 전체는 인간의 내면에 그려진 지도로 계속 유지되지만 개별 특징들이

은 필자가 클라우제비츠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52) 위의 책, pp.89~95.

반복적으로 조각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상상력이라고 불리는 정신력이 작용해야 한다.

최고사령관이 전체 전쟁 또는 전역이라고 일컫는 가장 큰 군사적 행동에서 빛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상위의 국가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는 한편으로 모든 국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용수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고도의 정신능력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경이로운 정신의 눈으로 승화된 통합력과 판단력이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동기는 극히 약하기 때문에 아는 것(인식)과 하고자 하는 것(의지), 알고 있는 것(지식)과 할 수 있는 것(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서 형제와 자녀들의 안녕과 조국의 명예와 안전보장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은 창조하기보다는 탐구하는 두뇌, 편협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두뇌, 뜨겁기보다는 차가운 두뇌의 소유자인 군사적 천재여야 한다.

4. 군사적 천재의 의미

클라우제비츠가 ‘군사적 천재’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군대라는 전투력, 즉 폭력의 운용을 지도하는 최고사령관의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쟁은 쌍방이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다. 물리적 폭력이 직접 충돌하는 현장에서 의지, 즉 정신적 힘은 중요하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의 성과를 토대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최고지휘관은 상대의 의지

를 꺾기 위해 더 큰 의지의 힘인 정신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

최고지휘관의 정신적 힘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은 단지 천재 수준의 정신적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군사적 천재’는 1편 1장 ‘전쟁이란 무엇인가?’의 결론인 ‘삼위일체론’을 근원으로 『전쟁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며, 전쟁의 행위적 주체로서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핵심이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연적 이념으로서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이 『전쟁론』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적 천재’와 ‘삼위일체론’, ‘불확실성’, ‘전쟁이론’, ‘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가.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중재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해 1편 1장의 결론 외에는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편 1장의 논리구조를 살펴보면 그는 이미 서두에서 전쟁의 본질적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복선을 깔아 놓았다. 그는 전쟁을 ‘확대된 양자대결’로 정의한 뒤 추상적 개념의 상호작용과 극단(極端)으로서 ‘폭력성의 극단’, ‘의지의 극단’, ‘힘의 극단’ 등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2절~4절). 그는 이러한 추상적 의미의 극단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전쟁 현상의 개연성 등 현실적인 제한에 따라 극단으로 치달지 못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의 전쟁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6절~9절). 이에 따라 그는 현실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전쟁과 관련된 요소로서 개별 국가와 정부를 먼저 설명하고 국민의 폭력적 성향을 설명하였다(10절~11절). 그리고 전쟁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정지되는 원인으로 공격·방어의 양극성, 불확실한 상황 파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전쟁에서 군대의 운용이 우연과 확률이라는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12절~22절). 이러한 분석에 따라 1장의 결론이자 전쟁이론을 위한 결론으로 제시한 것이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상적(이론적) 개념과 구체적(현실적) 개념의 논리적 이중구조로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먼저 ‘국민-야전사령관과 군대-정부’라는 구체적 개념을 찾아냈고, 그 요소들의 추상적 속성으로서 ‘감성(감정)-우연-이성(오성)’을 분석해 내면서 논리적 이중구조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이 개념들을 종합하여 논술하는 과정에서는 추상적 속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 주체와 연계하는 순서로 개념화 한 것이다.⁵³⁾ 여기서 필자는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경이로운 삼위일체’ 개념의 논리적 이중구조의 연원과, 삼위일체의 한 요소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가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연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종교계에서 연구된 용어로 『가톨릭대사전』에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실체(實體) 안에 세 위격(位格)으로서 존재하는 하느님적 신비를 지칭한다. 하느님의 육화(肉化)와 은총(恩寵)과 함께 그리스도의 3대 신비를 형성하는 이 삼위일체 신비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세경륜적 삼위일체

53) 김태현, “『전쟁론』 1편 1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 : 전쟁의 무제한성(Entgrenzung)과 제한성(Begrenzung)을 중심으로”, 『군사』 95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202; 김태현은 “가변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감성-이성-우연’이라는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식별하였고 이를 ‘국민-정부-군대’의 속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본질을 ‘카멜레온’으로 정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필자의 논의와 상반되는 의견이다.

로 구별되어 파악된다.”⁵⁴⁾

이 설명에서 나타난 세 위격이란 개념이 삼위일체의 요소들이다. 이 요소의 개념과 생성에 대한 『가톨릭대사전』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우구스티노에 의해 계발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심화된 이른바 ‘심리학 적 삼위일체론’(心理學的 三位一體論, De Trinitate psychologica)은 사계에서 고전적이고 전통적 삼위일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 그는 하느님 본질의 단일성과 세 위격들의 구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비(類比)를 인간영혼(anima)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억(mens), 인식(notitia), 사랑(amor)이 영혼의 세 가지 속성으로 파악되고, 이들이 삼위일체의 내재성을 특징하게 이해토록 하는 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억하고 인식하고 사랑하는 영혼의 유비 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실재의 세 현실적 요소들로서의 위격들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억이 성부에, 인식이 성자에, 사랑이 성령에 해당된다고 설명된 것이다.”⁵⁵⁾

아우구스티노(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399~420년 어간 저술)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개념은 신적인 삼위일체와 인간의 영혼적 삼위일체를 대비시키는 유비적 표현⁵⁶⁾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적 이중구조이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중구조와 유사한 전개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사하게 유비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쟁은 경이로운 삼위일체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 전쟁을 지배하는 성향과

54) 『가톨릭대사전』,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search.asp>(다음 검색, 삼위일체, 검색일 : 2016. 1. 16)

55) 위의 웹주소

56) 유비(類比)란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며, 또 한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된 전체 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전쟁은 그 구성요소인 적대감과 적대의도에서 연원된 원초적 폭력성을 갖는다. 이 폭력성은 맹목적인 본능과 같은 것이다. 둘째, 전쟁은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활동으로 만드는 확률과 우연의 게임이다. 셋째, 전쟁은 정치적 도구로서 정치에 종속된 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은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도 귀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은 국민, 두 번째 측면은 야전사령관과 군대, 세 번째 측면은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⁵⁷⁾

위에서 논의한 삼위일체의 유비적 표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클라우제비츠의 논리적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종교적 삼위일체	인간의 영혼적 요소	신적(神的) 요소
전쟁의 삼위일체	성향적 요소	실체적 요소

<그림 2> 종교적 삼위일체와 전쟁의 삼위일체 비교

57) 류제승 역, 앞의 책, pp.57~58.

이와 같이 클라우제비츠는 종교적 삼위일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를 차용하여 전쟁의 현상에서 분석한 삼위일체 요소를 각각의 위격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wunderliche Dreifaltigkeit)’도 종교적인 용어를 차용하여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의 종교 인사들의 표현에 ‘신비로운 삼위일체(mystische Dreifaltigkeit)’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클라우제비츠는 종교적 용어인 ‘mystische’라는 표현을 ‘wunderliche, 경이로운’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종교적인 용어와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이다.

2) 삼위일체 요소의 중재자로서 ‘군사적 천재’

다음은 삼위일체의 한 요소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가 ‘군사적 천재’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론이 성립하려면 삼위일체의 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균형 개념은 몽테스키외가 정치체제 각각의 권력 주체들이 최대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행위 주체들인 국민-야전사령관 및 군대-정부가 최대한의 자유로 일체가 되려면 균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8) Gin Tagblatt, 『Das Ausland』, 1831, p.199.(<http://books.google.co.kr/books>, 구글 검색, mystische Dreifaltigkeit, 2016. 2. 5), G. 타크블라트는 이 책에서 “우리는 첫째로 깨달음과 함께, 둘째 근경과 함께, 셋째 깨어 있는 상태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신비로운 삼위일체에 대한 깨달음이어!” “Wir steigen die erste stiege hinauf, sie ist mit unschlitt erleuchtet, die zweite mit pech, die dritte, die ins allerheiligste fährt, mit wachs. Eine mystische dreifaltigkeit der erleuchtung!”라고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은 상이한 법칙처럼 보이지만, (...) 만일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을 무시하거나 다른 이론과 어떤 자의적인 관계를 성립하고자 한다면, 그 순간 이론은 이미 파괴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세 가지 성향, 즉 세 가지 인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⁵⁹⁾

클라우제비츠는 몽테스키외의 균형 개념과 함께 종교적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등하고, 분리되지 않으며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배척할 수 없다는 본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서의 삼위일체도 이처럼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등한 본성을 갖고 있고 서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종교적 삼위일체는 ‘성령’이나 ‘사랑’이라는 위격에 의해 매개되는데, 이 위격은 매개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격들과 동등하다. 이는 전쟁의 삼위일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성향적 요소들은 우연이라는 요소가 매개하는데, 이것은 칸트에 있어서 감성과 이성을 매개하는 것이 시간⁶⁰⁾인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 우연은 매개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이성이라는 요소와 동등하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연에 유비되는 야전사령관과 군대도 전쟁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요소이지만 다른 요소들과 동등하다. 그러나 종교적 삼위일체와 전쟁의 삼위일체가 다른 것은 전쟁에서는 인간이라는 실체적인 존재가 공통요소라는 것이다. 추상적 개념의 종교적 삼위일체는 세 위격들의 관계 정립만으로 균형이 유지되지만 전쟁의 삼위일체는 다르다. 전쟁의 삼위일체에서 행위 주체인 각각의 요소들은 작위적(作爲的)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최대의 자유를 확보하면

59) 류제승 역, 앞의 책, p.58.

60) 김정주, 앞의 논문, pp.248~249. 시간의 형식적 직관은 한편으로는 감성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오성)적이다. 모든 실제적인 현상들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한 시간은 인식능력으로서 감성과 지성(오성)의 표상내용을 매개한다.

서 일체로서의 모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요소들이 같은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우주의 천체들이 만유인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들이 삼각형을 이루고 동등한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개념을 상정했던 것이다. 그는 ‘Anziehungspunkten(인력+점)’과 ‘schwebend(떠 있는)’이라는 단어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전쟁의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은 크기나 무게, 거리라는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징적인 요소로서의 특성만 있을 뿐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소를 ‘점(spunkten)’으로 상정하고, 각각의 요소(점)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Anziehung)’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인력이 작용하는 장소를 지표면이 아닌 가상의 공간으로 상정하여 ‘떠 있는(schweben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⁶¹⁾

61) ‘인력’과 ‘떠 있는’에 대한 독일어 원문과 피터 파렛의 번역, 류제승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a. 독일어 원문 : “Die Aufgabe ist also, daß sich die Theorie zwischen diesen drei Tendenzen wie zwischen drei Anziehungspunkten schwebend erhalte.”(앞의 웹주소,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 b. 피터 파렛 번역문 : “Our task therefore is to develop a theory that maintains a balance between these three tendencies, like an object suspended between three magnets.”(Peter Paret & Michael Howard, 앞의 책, p.89)
 - c. 류제승 번역문 :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세 가지 성향, 즉 세 가지 인력(引力)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류제승, 앞의 책, p.58.)
- * 필자는 두 번역이 클라우제비츠가 ‘인력’을 우주 공간의 물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개념으로 상정했던 것을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약간씩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본다. 파렛은 이러한 인력을 ‘자석(magnet)’으로 번역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요소들이 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파렛의 번역에서 가장 큰 오류는 ‘세 개의 자석 사이에 떠 있는 물체’로 번역한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을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세 개의 성향, 즉 세 개의 인력점들이 공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파렛이 ‘자석사이에 떠 있

최대한의 자유와 균형을 확보한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들은 이제 자체의 고유한 이론과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삼투(滲透)하게 된다. 국민은 군대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부에 대해 전쟁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한다. 정부는 군대에 정치적 목적에 따른 목표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전쟁의 진행상황을 홍보하며 최대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야전사령관과 군대는 정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고 전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고유의 이론에 따른다 하더라도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을 타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군사적 천재는 전쟁의 삼위일체 요소들인 감성(폭력성, 국민)과 이성(정부)을 중재하는 존재이며, 다른 요소들에게 최대의 자유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나. 불확실성과 우연의 지배자

1) 불확실성과 우연의 근원

클라우제비츠 시대의 전쟁은 인간에 의해 지리적 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이 충돌하는 현상이었다. 전쟁을 구성하는 인간과 지리적 공간, 물리적 폭력 중 가장 큰 변수는 인간적 요소이다. 적대 쌍방의 인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현상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정신적 힘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있다.

는 물체로 번역한 것에 대해 Bassford가 이것의 오류를 지적하는 실험을 했는데 상세한 것은 앞의 웹주소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 Reading 메뉴에서 CHRISTOPHER BASSFORD “TIP-TOE THROUGH THE TRINITY”를 참조)

“불완전한 인격체인 인간은 절대적 완전성에는 도달할 수 없으므로 양측 상대에게 공히 나타나는 이러한 불완전성은 하나의 완화 원리가 된다.”⁶²⁾

클라우제비츠는 폭력이 극단적으로 발휘되어 절대적 수준에 도달하는 이론적 전쟁이 현실적 수준의 전쟁으로 완화되는 출발점을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보았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불확실성을 낳는다. 이 불확실성이 전쟁을 개연성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개연성의 영역에서는 우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우연적 현상이 자기에게 유리한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여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카드 게임과 같은 도박의 성질을 갖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대략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그때까지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성은 항상 투명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정신은 때때로 불확실성에 이끌려 지각하기도 한다. 인간의 이성은 (···) 철학적 탐구와 논리적 추론의 좁은 오솔길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상상력과 함께 우연과 행운의

62) 류제승 역, 앞의 책, p.40. 1편 1장 7절,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류제승은 이 문단이 포함된 7절의 제목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사용한 ‘**isolierter**’를 ‘**고립된**’으로 번역했는데 단어의 의미로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클라우제비츠가 의도했던 것은 ‘혼자’, ‘단독’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 7절의 내용은 적대 쌍방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인성, “존. 히크의 신정론 연구”, 『철학논총』 20집, 2000. p.10; 이승현, “슬라이에르마허의 인간이해에 대한 소고”, 『대학과 복음』 5집, 대한복음학회, 2001, p.128. 전통적인 종교의 시각에서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은 인간의 완전성을 주장하지만, 독일의 종교철학자인 F. 슬라이에르마허(1768~1834)는 “죄와 악은 신의 목적의 포괄적인 영역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다. 구원은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불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신의 은총 속에서 신이 원하는 완전성으로의 도달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불완전성을 주장하였다.

영역에서 안주하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이성은 빈약한 필요성보다는 풍부한 가능성에 탐닉한다.”⁶³⁾

클라우제비츠 당시나 그 이전에 군사문제를 다룬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제한하여 확실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초에는 과학적·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전쟁에서 확실성을 달성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였다. 로이드(Henry Lloyd : 1720~1783)나 뷔로우(Dietrich A. H. von Bülow : 1757~1807)는 지도나 지형적 계측, 행군계획표, 군수조달, 전선(戰線)과 보급선에 관련된 수학적·기하학적 정확도를 추구하여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⁶⁴⁾ 전쟁 현상을 분석하면서 과학적·수학적으로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이 정확성과 확실성을 아무리 완벽하게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신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까지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도식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이론적 시도들은 오직 고정된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므로 모든 계산은 가변적 크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론적 시도들은 오직 물질적 크기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전체 군사적 행동은 여러 정신적 힘과 그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론적 시도들은 오직 한편의 활동에 대해 고찰하고 있지만 전쟁은 양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⁶⁵⁾

63) 류제승 역, 앞의 책, p.52.

64) 허남성, 앞의 논문, pp.321~322.

65) 류제승 역, 앞의 책, p.117.

2) 불확실성과 우연을 지배하는 힘

적대적인 양측은 각각 상대방의 성격·제도·상태·상황 등에 기초하여 개연성의 법칙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추론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추론과 행동의 결정, 행동의 실행과정에서 쌍방의 의도와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여 우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불완전성이 야기하는 고통과 피로와 공포라는 전쟁의 독특한 분위기가 마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불확실성과 우연을 확대한다. 불확실성과 우연의 영역에서 양자 간의 물리적 폭력의 수준과 정확성·확실성의 추구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면 승리는 수준이 높은 쪽에 돌아갈 확률이 크다. 이러한 정확성과 확실성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고통과 피로와 공포를 극복하는 정신적 요소의 힘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⁶⁶⁾ 심지어 계량적인 정확성과 확실성의 수준에서 열세라 하여도 최고지휘관의 군사적인 천재성을 보여 주는 정신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여러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하는 정신적 힘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연원한다.

클라우제비츠가 생각하는 불확실성과 우연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정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빈약한 확실성의 추구에 대한 필요성보다 인간 정신의 풍부한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⁶⁷⁾ 클라우제비츠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풍부한 가능성인 위대한 정신적 힘은 용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 용기가 모험, 행운, 대담함 등으로 나타나 불확실성과 우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군사적 활동이 존재하는 영역은 위협의 영역이다. 위협의 영역에서 최고의 정신능력은 용기이다. (···) 모험성, 행운에 대한 믿음, 대담함, 무모함 등은

66) 이종학, 앞의 책, pp.107~108.

67) 허남성, 앞의 논문, pp.324~325.

용기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정신적 특성들은 구성요소인 우연을 좇는다.”⁶⁸⁾

불확실성의 광야에서 카멜레온 같이 다양하게 변하는 전쟁의 모습은 최고지휘관에게 용기와는 다른 감성(감정)과 이성(오성)이 통합된 정신적 힘을 요구한다. 전쟁 현상의 세계에서 불확실성과 우연은 불가피한 성향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며 적대적인 양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 의지가 정신적인 힘이다. 이 정신적 힘이 때로는 대담함이나 무모함으로 발휘되어 불확실성과 우연이 도처에 숨겨진 도박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할 수 있게 한다. 군사적 천재의 강한 의지로 나타나는 위대한 정신적 힘은 그래서 최선의 원칙을 만들어 가는 행동을 통해 불확실성과 우연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이다.

다. 전쟁이론과 전략 수행의 중심

1) 전쟁이론 정립의 중심

현대 사회과학의 이론적 접근에 대해 켈링저(F. N. Kerlinger)는 “이론이란 논리적 차원에서 나타난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언(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인(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상의 체계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개념, 정의, 명제들이다.”⁶⁹⁾라고 정의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현대의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이론의 정의와 같이 전쟁 현상에 접근하였다. 그는 전쟁을 관찰한 결과에 따라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변수들 간의 관

68) 류제승 역, 앞의 책, p.52.

69) F. N. 켈링저 저, 고희화 외 역, 『사회·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F. N. Kerlinger,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서울 : 정원사, 1989, p.37.

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전쟁의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1편 1장의 결론에서 삼위일체의 ‘세 가지 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이론으로 정립하는 방법을 2편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2편 1장에서 그는 세 가지 인력 요소 중 ‘주어진 수단’으로서 야전사령관과 군대를 첫 번째 변수로 설명하였다. ‘주어진 수단’(야전사령관과 군대)을 운용하는 것을 전쟁술로 정의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전쟁술을 전쟁지도(戰爭指導, Krieg-führung)라고 하면서 전쟁지도를 전술과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전술적인 지도는 전투력을 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전략은 전쟁 목적을 위한 전투의 운용에 관한 지도라는 것이다.⁷⁰⁾ 전쟁이론은 전쟁지도이론을 포함하는 전체 전쟁에 대한 논리적 접근의 결과물이다. 전쟁이론에 있어서 전술과 전략은 수단과 목적 측면에서 본질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함을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론은 목적과 수단의 본질을 고찰해야 한다. 전술에서 수단은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훈련된 전투력이며 그 목적은 승리이다. (...) 전략은 이러한 승리를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전략은 전투에 이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은 고유의 가치를 형성한다.”⁷¹⁾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운용에 대한 전쟁지도이론은 전쟁 수행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변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 전쟁지도이론의 난점(難點)은 군사적 활동의 본질에 포함된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⁷²⁾ 클라우제비츠는 이런 난점을 해소하고 세 가지 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은 최고지휘관의 천재성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70) 류제승 역, 앞의 책, p.110.

71) 류제승 역, 앞의 책, p.125.

72) 이종학, 앞의 책, p.205.

“천재가 행하는 것은 곧 최고의 원칙이어야 한다. (기존의) 이론은 어떻게, 왜 그런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역할이 없다. (기존의) 이론은 천재에게 순응할지라도 모순을 개선할 수는 없다. (···) 천재는 법칙의 범주 밖에서 행동하며 (기존의) 이론은 실제와 모순된다.”⁷³⁾

클라우제비츠는 이로써 기존의 이론을 능가하는 전쟁이론을 정립 하는데 있어 군사적 천재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⁷⁴⁾

2)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서의 중심

다음은 전략의 수행과 군사적 천재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현대적인 전략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방안을 모색하고 그 행동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병력, 장비, 물자 등 군사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⁵⁾ 전쟁의 목적에 따른 수단의 운용에 있어 전투를 운용하는 전략은 군사적 행동방안에 대한 모색과 그 실행을 위한 군사자원의 사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최고지휘관의 천재성을 필요로 한다. 전략과 전체 행동의 조화를 위한 천재의 중요성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군주 또는 야전사령관의 천재성은 전쟁을 그 목적과 수단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하고, 과다 또는 과소행동을 하지 않는데서 가장 잘 입증된다. (···) 우리는 무언의 가정의 적중과 성공적인 최종결과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전체 행동의 조화’에서 천재성을 발견하고 감탄한다.”⁷⁶⁾

73) 위의 책, pp.117~122.

74) 류제승 역, 위의 책, pp.119~123.

75) 이종학, 앞의 책, p.221.

76) 류제승 역, 앞의 책, p.152.

최고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천재는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현상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꿰뚫는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략의 수행과 관련한 군사적 환경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당시 유럽 각국의 군 수준이 무기·조직·훈련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군의 무덕, 야전사령관의 재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⁷⁷⁾ 물리적인 환경면에서는 대등하여 큰 변수가 되지 않지만 군대의 정신적 요소와 군사적 행동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휘관의 능력은 중요한 변수로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찰해야 할 변수로서 중요한 정신 능력을 군의 무덕, 군의 국민정신, 야전사령관의 재능 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이 정신적 요소를 단체정신(innungsgeist; esprit de corps, 團體精神)으로서 군대의 무덕(kriegerische Tugend, 武德)과 적의 약점에서 이점을 끌어내는 진정한 창조적 힘으로서 대담성(kühnheit, 大膽性)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야전사령관의 정신적 요소와 관련된 천재성을 강조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요인 중 단체정신으로서 군의 무덕을 먼저 설명하였다. 무덕의 첫째 성격은 절제되고 고차원적 요구에 순응하는 용감성이며, 둘째는 전쟁에서 군인들의 자연적 힘들을 결합시키는 단체정신이다. 셋째는 전쟁의 위험·공포·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불굴의 노력을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군사정신이다.

두 번째로 설명한 대담성을 클라우제비츠는 “수송병에서 야전사령관에게 이르기까지 가장 고귀한 덕이며, 무기가 예리함과 광채를 띠도록 해주는 진정한 강철이다.”⁷⁸⁾라고 하여 모든 군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보았다. 그는 군인의 대담성을 찰나의

77) 위의 책, p.170.

78) 류제승 역, 앞의 책, p.163.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기회의 순간을 이용함으로써 이점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고지휘관의 전략 실행은 소심함보다는 무모함에 가까운 대담한 결심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하였다.

클라우제비츠가 3편 ‘전략’에서 정신적 요소를 강조한 이유는 1편에서 설명한 군사적 천재의 개인적인 정신능력에 추가하여 전략을 다룸에 있어 전체 군대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정신적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전략은 전술적인 승리를 토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전체 군대의 단체정신으로서 무덕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에서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하려면 도박에서처럼 배짱 있게 밀고나가는 대담성이 필요한 것이다.⁷⁹⁾ 클라우제비츠는 알렉산더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군의 대형에 간격이 발생한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한 전사와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기동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나폴레옹 군대의 전사로부터 대담성과 무덕의 필요성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클라우제비츠는 최고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천재는 전체 군대가 단체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고, 배짱 있는 기질을 토대로 대담성을 발휘함으로써 전략을 실행하여 승리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5. 맺음말

현대전의 양상은 클라우제비츠가 19세기 초에 경험한 전쟁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크게 변화되었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79) 허남성, 앞의 논문, p.323.

무기, 해상과 수중, 공중과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는 무기 등 그 종류와 수량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많다. 심지어 모든 수단이 동원된 전쟁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핵무기까지 사용되었다. 게다가 적의 활동을 파악하고 의도를 읽기 위해 군사위성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휘통제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할 최첨단 무기와 장비가 동원되는 현대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싸움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인간은 일찍이 싸움의 욕구를 바탕으로 특별한 발명에 힘썼다. 이로 인해 싸움은 크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싸움이 어떠한 양상을 띠든 간에 그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⁸⁰⁾라고 하였다. 그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동원되는 무기와 장비의 물리적인 속성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전쟁은 상대에게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진리를 간파했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이 현명한 통찰은 현대에도 유효하다. 여기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군사적 천재’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다.

첫 번째 함의는 전쟁의 본질적 요소의 조화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현대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행위 주체에 따른 전쟁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국민-야전사령관과 군대-정부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최대의 자유를 유지할 때 가장 큰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쟁의 삼위일체는 모든 요소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공통요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국민과 정부라는 요소와의 균형을 파괴하고 국민과 정부의 자유를 박탈한 야전사령관과 군대 요소로서의 일본군에 의해 수행되었던 군

80) 류제승 역, 앞의 책, p.109.

국주의 사례로부터 삼위일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야전사령관이라는 요소와의 균형을 파괴하고 야전사령관의 자유를 박탈한 정부 요소로서의 히틀러와 스탈린그라드 전투 사례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 요소가 각각의 이론에 의해 움직이도록 자유를 보장할 때 그 조화와 균형 속에서 전쟁이라는 현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현대에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유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불확실성은 영원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전쟁에 있어서도 쌍방 간의 무기와 장비, 제도 등 물리적 요소의 차이는 ‘재빠른 모방자’에 의해 대등해 질 수 있다.⁸¹⁾ 쌍방 간의 첨단 감시장비 등을 이용한 ‘교묘한 확실성’의 추구는 ‘영활한 회피자’에 의해 또 다른 불확실성이 파생된다. 결국 더 높은 확실성을 위해 ‘불완전한 현명함’으로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인간 자체의 모순과 이 모순에 의지(依支)한 쌍방 간의 자유의지(意志)가 불확실성을 배태(胚胎)한다. 불확실성을 지배하기 위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확실성으로 승리하기 위한 불변의 원칙이나 법칙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천재성을 발휘해야 하는 지휘관은 전쟁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적(知的) 탐구와 함께 용기, 결단력, 대담성 등 정신능력의 함양을 통해 불확실성을 지배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적·정신적 능력을 겸비한 군사적 천재로서 탁월한 리더십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최고지휘관 한 사람에 의해 지휘되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하 구성원

81) 류제승 역, 앞의 책, p.236.

들에 의한 개별 전투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다. 이 개별전투에 투입되는 전체 군대에도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군의 무덕으로서 단체정신이다. 단체정신은 어떠한 위험도 극복하고 승리하겠다는 모든 군대 구성원의 정신적 힘이며 이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한 것이다. 군사적 천재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능력은 기존의 규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손자가 말한 전승불복(戰勝不復)과 같은 의미에서 현대의 전쟁을 지휘하는 군인에게도 승리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천재로서의 정신적인 능력은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또한 전쟁이라는 현상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는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를 달성하려면 도박과도 같은 신속한 결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것처럼 대담한 결심과 실행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지휘관은 자신의 역량을 최고도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전체 군대가 응집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구성원들에게 지적(知的)으로 자극을 주며, 영감적(靈感的)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이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적 천재’는 전쟁에서 나타나고 드물게 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천재성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하급지휘관에서부터 최고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클라우제비츠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군사적인 무력을 행사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은 천재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쟁의 본질 속에서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군사적 천재가 삼위일체 요소들 간의 중재자로서, 불확실성과 우연의 지배자로서, 전쟁이론과 전략수행의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4.1,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전쟁론, 군사적 천재, 삼위일체, 자유와 균형, 전략, 전쟁이론,
불확실성, 용기, 대담성, 단체정신

<ABSTRACT>

The meaning of ‘Military Genius’ in Clausewitz’s *On War*

Im, Ik-S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search that how to Clausewitz figure out the concept of ‘Military Genius’ in *On War* through analyzing for the nature of war and developing the war theory, and that what is the ‘Military Genius’, and that which meaning and implication is for today.

Clausewitz’s perspective in developing for war and ‘Military Genius’ was searching for nature factors in variety and complicated phenomena of war by Montesquieu’s analysis – synthesis method for searching of type of a political structure in *The Spirit of Laws*. In the flow of history, Clausewitz spread out the logic that borrowing the thought and format from Kant and Hegel through core value of Enlightenment – reason, empiricism, science, universalism, freedom, simplicity of human nature.

The concept of ‘Military Genius’ is the outcome that Clausewitz developed the logic about correlation between the appeared genius in war phenomena and unique traits of genius and artist in Kant’s *Critique of Judgment*. Clausewitz accepted the thought of Kant’s Theory of Genius and Theory of Art and A. Gerard’s opinion. But, Clausewitz explained the mental capacity in his own ward re-interpreting unique trait for Military Genius in war phenomenon that distinguish Kant’s genius in the Theory of Art.

The Meaning of Military Genius in *On War* is that he is the existence of playing a main part for maintaining maximum freedom and balance to element of trinity as the arbitrating exist. And that he play a

center part for developing the victorious strategy thinking over all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passing through the total phenomenon world in war. And he has to dominate the uncertainty through the courage as private mental capacity and a piercing eye(coup d'oeil), determination, equanimity, the power of self-control, sense of topography as supreme commander. And he has to play a center part for victory and implementing the strategy through fostered the total force's team spirits and demonstrating the fearlessness.

Given the implicature for us today by Clausewitz's *On War* and 'Military Genius' is that we can control and overcome the uncertainty because the uncertainty can't be eliminated forever. And to the soldier, in commanding war, private mental capacity is the highest value in any war. Furthermore, it's also very important for military's team spirit and commander's fearlessness in war. In addition, it's very important value today that we have to right understand trinity as the harmony of nature element in war.

Key words : On War, Military Genius, Trinity, Freedom and Balance, Strategy. War Theory, Uncertainty, Courage, Fearlessness, Team spirit